



모네·마티스·밀레 너머 제주 청년작가의 초상

도립미술관 10주년 특별기획
내일부터 '프렌치 모던...' 전
모더니즘 대표작가 60여점
같은날 청년작가 발굴전 동시
강태환의 대형 설치작품 공개

10주년 제주도립미술관(관장 최정주)이 같은 날 나란히 두 개의 전시를 시작한다. 이달 18일부터 열리는 해외미술 특별전 '프렌치 모던: 모네에서 마티스까지, 1850-1950'과 '2019 영 앤 이머징 아티스트(Young & Emerging Artist)로 기획된 '강태환-휴(休)' 전이다. '프렌치 모던...'은 도립미술관 단일 기획전 중에서 근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모더니즘의 전개 과정과 미술사의 혁명기에 대한 내용

을 살필 수 있는 '정통 미술사' 전시라고 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미술관 소장품인 모더니즘 대표작가 45명의 회화와 조각 작품 60여 점이 처음 제주에 온다. 풍경화, 정물화, 초상화와 인물 조각, 누드화 등 4개 섹션에 걸쳐 클로드 모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폴 세잔, 에드가 드가, 앙리 마티스, 장 프랑수아 밀레, 마르크 샤갈 등의 작품을 내놓는다. 특별전 기간에는 '디지털로 만나는 유럽 모더니즘의 화가들'도 운영된다. 거장들의 작품을 IT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 TV존, VR존, 미디어아트존, 포토존 등 디지털 콘텐츠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내년 2월 7일까지, 25세 이상 성인 1만원(도민 50% 할인). 청소년과 어린이는 무료. 이날 시민갤러리에서는 만40세 이



'프렌치 모던'전에 나오는 밀레의 '양 떼를 치는 남자'.

하 제주 청년작가 발굴·지원 프로젝트로 강태환 개인전이 막을 올려 내년 2월 7일까지 계속된다. 해외미술 특별전을 찾는 관람객들이 제주 작가에도 주목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에 전시 일정을 잡았다.

강태환 작가는 제주대 미술학과를 거쳐 현재 홍익대학교원 미술학과(조소 전공)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강 작가는 가로 2.4m, 세로 5m, 높이 3.3m의 대형 광섬유 설치 작품 1점을 선보인다. 문의 064)710-4274. 전선희기자

제주 준공건축물 '세거리집' 대상

제주건축문화축제 일환
건축문화인상은 유동룡
이달 31일 개막식서 시상

제일교보 건축가 유동룡(이타미 준, 작고)이 2019제주건축문화대상 건축문화인상에 선정됐다. 준공건축물 부문은 '제주도 세거리집'(푸하하하 건축사무소, 한양규)이 대상작으로 뽑혔다. 제주건축문화축제를 주관하는 제주건축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건축문화인상 선정 배경에 대해 "유동룡은

일본과 한국을 주 무대로 삼아 건축물이 세워질 장소의 고유한 풍토, 지역성을 살려 인간의 삶에 어우러지는 건축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제주 '포도호텔'(2001), '수·풍·석 미술관'(2006), '방주교회'(2009) 등을 설계했다. 준공건축물 부문은 주거 부문 16작품, 비주거 부문 10작품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대상작에 이은 본상은 '송당리 오름 품은 집'(에스오디에이, 백승현), '스튜디오 아뜰리에일일'(아뜰리에일일, 박현모)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들은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장점으로 만들어 새로움을 모색한 점이 신선한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평했다. 어린이 대상 자연과 어우러진 제주건축 그리기는 고서윤(제주교대부설초 3)이 대상에 올랐다. 김소은(중문초 4), 김주호(동광초 2), 김하은(이도초 5)은 우수상에 들었다.



2019제주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대상 '제주도 세거리집'.

시상은 10월 31일 오후 4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리는 2019제주건축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이루어진다. 올해 제주건축문화축제는 '땅과 함께 유기적으로 숨쉬다'를 주제로 11월 9일까지 이어진다. 10월 31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월 4일과 5일 제주대 아라컨벤션홀에서는 건축 강연과 세미나가 잇따른다. 11월 1-9일에는 제주도청 별관 1층 홀, 2청사 1층홀에서 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일본 오기나와현 건축사회 입상작, 경남·광주·경기·강원 4개 지역 건축문화대상 작품 등을 전시한다. 11월 8일 서귀포 김정문화회관, 11월 9일 메가박스제주점에서는 건축영화 상영회가 개최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에서 논하는 통일시대 지역문학

전국문학인포럼 내일부터
업무용 평론가 기조강연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시작되는 공간인 제주에서 통일 문학을 논한다. 제주문화원, 제주문인협회, 제주작가회의로 구성된 전국문학인 제주포럼 조직

위원회 주관으로 이달 18-20일 열리는 제3회 전국문학인 제주포럼이다. 개막식은 첫날 오후 6시 오리엔탈호텔에서 개최된다. 이 때는 지난 4월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 초대 관장인 업무용 문학평론가가 초청돼 '우리 운명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한다. 기조

강연에 앞서 전국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이 마련되고 오후 4시에는 특별 세션으로 '통일을 넘는 4·3문학' 주제 토론회를 벌인다. 둘째날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3개 세션에 걸쳐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세션별 주제는 '통일시대 지역문학의 기억과 지향', '통일시대를 위한 지방사 연구와 지역문학', '통일시대, 지역문학의 역할과 방향'으로 짜여졌다. 문학포럼 마지막 날에는 제주목관아

에서 공연·체험·전시로 꾸미는 '문학 불타'가 운영된다. 제주도내 출판사가 초청한 작가들의 문학 토크콘서트, 시 노래, 시극 등이 잇따른다. 문학라디오, 추억의 문학블루스 등 1980-90년대 문학청년들의 추억도 꺼내놓는다. 필사노트 만들기, 시화 프린팅, 즉석 글쓰기, 중고시집 교환코너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고 제주작가 도서전, 제주작가들의 시가 담긴 시옷 전시 등도 진행된다. 전선희기자

시(詩)로 읽는 4·3 (30)

섬의 우수

강중훈

여기 가을 햇살이
예순 두해 전 일들을 기억하는
그 햇살이
그때 핏덩이던 할아버지의 주름진
앞이마와
죽은 자의 등에 업혀 목숨 건진
수수깡 같은 노파 잔등 위로 무
진장 쏟아지네
거북이 등짝 같은 눈을 가진 우
리들이 바라보네
성산포 앞바를 떠진목'

바다 물살 파랑계 질러
아직도 파들파들 떨고 있는데
숨비기나무 줄기 끝에
철 지난 꽃잎 몇 조각
핏빛 태양 속으로 목숨 걸 듯 숨
어드는데
섬의 우수 들불처럼 번지는데
성산포 4·3위령제영재단 위로
뉘 집 흔백인양 바다갈매기 하
얇게 사라지네

'섬의 우수(憂愁)'는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르 클레지오(J.M.G. Le Clezio)가 제주섬에 머물면서 집필한 '제주기행문'에 나오는 말이다. 그는 유럽 최대잡지 '지오(GEO)' 창간30주년 기념호(2009년 3월)에 '제주섬에 빠진 르 클레지오'란 제목의 글에서 "오늘날 제주에는 달콤함과 씁쓸함,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있다. 포퓰라 감정. 섬의 우수를 우리는 동쪽 끝 성산 일출봉 즉 '새벽 바위'라 불리는 이곳에서 느낄 수 있다."고 쓰고 있다.

2007년 11월 8일, 시인 강중훈이 운영하는 민박 '해 뜨는 집'에 프랑스 제5채널 TV제작진이 르 클레지오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찾아왔다. 다음해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그는 '해 뜨는 집'을 다시 찾았다. 강중훈과 르 클레

지오의 우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르 클레지오의 '제주기행문' 끝부분에 강중훈에 관한 사연도 있다. "1948년 4월 3일에 제주에서 군대와 경찰이 양민학살을 자행한 진부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오늘날 이 잔인한 전쟁의 기억은 지워지고 있다. 아이들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자신들 부모의 피를 마신 모래에서 논다. 매일 아침 휴가를 맞은 여행객들은 가족들과 함께 바위 너머로 솟는 일출을 보러 이 바위를 오른다. 숙청 때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을 잃은 시인 강중훈 조차 시간의 흐름에 굴복했다. 그가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그의 시 한편 한편이 그 9월 25일의 끔찍한 흔적을 지니고 있다.-그걸 뛰어넘을 필요성도 알고 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문화가 쪽지

국악협회 해녀 주제 공연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지회장 홍송월)는 2019년 해녀문화 우수예술창작지원사업으로 이달 20일 오후 7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이어도사나'를 공연한다. 이날 공연에는 90여명이 출연해 제주 해녀문화를 무대에 올린다. 국악실내악으로 재해석한 더 풍남의 창작곡과 창작무, 혼비무용단의 물러버춤과 해녀춤, 성산한마음민속회의 '멜 후리는 소리', 고은솔이린이합창단의 '너영 너영', 제주국악협회 회원들의 '해녀 노젓는 소리' 등을 만날 수 있다.

바람 활용 문화예술 교육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은 11월 3일 세계생활(안면면 산방로 380)에서 열리는 '바람이 데이터로 분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제주 바람을 몸으로 감각하고 언어화해 축적한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한 뒤 이를 다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해 빛으로 표현해보는 성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제주문화재단(www.jfac.kr)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800-9174.



안전하고,빠르고,즐거운 제주여행!
(주)유한고속관광이
항상 고객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통학버스(등·하교)/현장학습/수학여행
오름친목/결혼수송(전세버스 100대 보유)

http://www.yeuhangosog.com



(주) 유한고속관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보로 306(영평동)
TEL.724-9595, 0995 FAX.724-4411